



그들의 열정, 낙동강 푸른 물빛보다 빛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지난해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상북도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혁신적인 운영으로 2007년 '제 15회 세계 물의 날' 경상북도 물 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고, 2007년 환경부 주관 마을상수도 부문 평가에서 장려상이 확정되는 등 올해도 변함없는 상복(賞福)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코 운이 아닌 실력이라는 것을 사업소 모든 이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에 위치한 속리산의 주봉인 천황봉은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에 있고, 절경을 이룬 문장대는 화북면 장암리에 자리 잡고 있다. 속리산은 우리나라 중심부에 우뚝 솟아 국토의 정기를 하나로 모으고 있다. 하늘을 향하는 정기가 속리산이라고 한다면 땅을 품으며 유유히 흐르는 정결함은 낙동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주시는 소백산맥 남동 사면에 위치한 서고동저(西高東低) 형태의 지형으로 낙동강 본류가 동부 지방을 관통하는 천혜를 받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이런 아름다운 곳을 더 아름답게 지켜가고 있는 상주시, 그 중에서도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를 목표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하루는 늘 바쁘다.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1969년 준공한 무양상수도를 시작으로 38년간 상수도를 공급해 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모동상수도를 신설하면서 현재 무양·도남·함창·모동 등 총 네 개 정수장을 운영, 하루 2만 3,280m³의 수돗물을 정수하고 있다. 숫자로 보면 740여 km에 달하는 상수도관을 통해 약 10만 8,800여 명의 시민 중 6만 9,386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며 6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고

상주시는 행정자치부가 2006년도에 전국 16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전국 지방 직영기업 상수도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이미 2002년과 2004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최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해 보인 셈이다.

“상주시의 상하수도사업 부문이 좋은 성과를 내고 상을 받게 된 것은 직원 모두가 협동하고 단결하여 전국 최고의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목표가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비용절감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신갑철 소장은 연이어 쏟아지는 수상 소식에 대한 소감을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비용절감이라는 사업소의 경영혁신 노력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상하수도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부실 경영의 대가가 고스란히 수용가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 사업소 직원과 일부 일용직을 고용하여 직접 시행해 오던 상수도

내부역량 강화와 고객서비스 개선,
비용절감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경쟁력을 갖춘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들겠습니다.

신갑철 소장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장세철 계장 (행정담당)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발맞춰 저비용·고효율의 알뜰 경영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 계장 (상수도시설담당)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마을상수도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길 계장 (시설운영담당)

'한 차원 높은 고객만족을 위하여!' 맑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정희 계장 (시험담당)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돗물!!!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상주시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이재연 계장 (하수도시설담당)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과 혜택을 주는 하수도 우·오수 분리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계량기 검침 업무를 2005년 하반기부터는 읍면 지역의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 청년회 등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인력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매년 5,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은 곧 수용가로부터 검침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불러왔고 그 결과 요금 관련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상주시는 낙동강 본류를 수원으로 하는 도남정수장과 무양정수장이 시내권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7개 읍면 정수장에 소규모 정수장이 분산되어 수동운전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자칫 경영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IT 기반의 무인화, 자동화와 원격관리 운영이 가능한 상주시 상수도시설 자동화 및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날 방문한 도남정수장 제어실에서는 현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실시간 원격 제어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서비스는 생명,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최근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산간지방이나 변두리 외곽 지역에 상수도관 설치 신청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주시 물이 워낙 맑아 예전부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가 많았는데, 최근 관광객이나 황사와 같은 오염원들이 늘어나면서 안전한 수돗물로 눈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많아졌다고 봐야겠죠.”

과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주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신갑철 소장은 공기업 역시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만을 고집한다면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상하수도는 무엇보다 대국민 사업이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철저하게 귀 기울이고,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했다. “수질오염, 취수원 부족 등 물 부족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2009년 준공을 목표로 낙동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25개 리(里) 4,927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통해 상수도 보급률을 75%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갑철 소장은 간혹 산간지방에 떨어져 있는 개별 가구로부터 상수도 공사 요청이 들어오긴 하지만,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4~5명을 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을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중임을 밝혔다.

하수도 사업도 혁신의 원형이 되도록

상주시는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BTL(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을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부가적으로 하나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시 노후가 예상되는 지역의 상수도관을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향후 추가로 발생할 공사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현재 상하수도의 매설 지역 도면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신갑철 소장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오·우수관거 분리 사업에 상주시의 아이디어가 접목된다면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운영 제도가 팀제로 개편되면서 현재 17개팀 44명의 인원이 보다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소 경영혁신의 근간은 바로 사업소 모든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에서는 팀 구분 없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팀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 예방을 위해서는 요금관리팀과 제어실의 각 파트 담당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습동아리 덕분이기도 하다. 각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맡은 직무 외에도 타 부서에 힘을 실어주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신갑철 소장의 설명이다.

앞서가는 경영혁신을 기치로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뛰는 그들의 노력은 아마도 낙동강 푸른 물을 더 푸르게 만들 수 있다는 굳건한 의지와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